

## 21. 맺는 말

일본에서 국학(國學)이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일본 고유의 사상을 구명해 보려는 학문을 의미한다. 신관(神官)이었던 카다 아즈마마로(荷田春滿: 1669-1736년)는 고어와 고문학을 연구했고, 그 제자인 카모마부치(賀茂眞淵: 1697-1769년)는 만요오슈우(萬葉集) 등 고전을 연구하며 고대정신(古道)의 부활을 주장했다. 그 제자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년)는 1789년에 완성한 고사기전 44권에서 신이 정한 일본인 본래의 정신세계로 복귀할 것을 주장했다.

7세기 후반에서부터 8세기 초에 걸쳐 새로 창조된 역사를 기초로 해서, 국학파를 효시로 하는 근세 일본 사학계로부터 오늘날 바로 이시간의 일본 사학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순수한 토착 지배세력이 세운 일본열도 최초의 통일국가가 바로 야마토 왕국”이라는 얘기를 일본 고대사의 정설로 확립시키는데, 수많은 일본 학자들이 수백 년 간 혼신의 힘을 다 쏟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 고대사를 모른다 해서 한국 고대사의 연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대사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고대사와 고대 한일관계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일본 사학자들이 엄청나게 한국역사와 고대 한일관계를 연구했고, 자신들이 정설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고대사의 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국 고대사를 상당부분 왜곡해서 정리를 해 놓았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 축적된 연구 업적에 압도된 한국 국사학계는, 자연히 일본 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크게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 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일본의 역사학계는 이단적으로 보이는 예가

미의 기마민족설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거론을 하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기마민족설의 본질과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 적지 않은 경우, 일본 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설”에 위배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뿐 아니라,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거부반응이 나오는 체질이 된 것같이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고대 한일관계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소수의 “비정통” 전문가들만이 해 왔다. 하지만 이 비정통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촉매 역할을 해서, 일본 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정통” 국사학자 세대가 조만간 한국 땅에 대거 출현 하리라고 믿는다.

## 1부에서 설정된 가정들의 요약

[가정 1] 고사기의 상권 신대에 나오는 “니니기”와, 중권의 처음과 끝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하레(진무)”와 “호무다(오오진),” 이 세 개의 존재가 바로 야마토 왕국의 시조 한 사람의 세 가지 측면을 기록하고 있다. 즉, 니니기 편은 설화적인 측면을, 이하레 편은 전투와 정복을, 그리고 호무다 편은 백제인의 대량 도래를 기록한다.

[가정 1.1] 호무다의 출생 년도(소위 신공황후 섭정 원년의 바로 전해)는 340년이 된다.

[가정 1.2] 고사기에 의하면, 진무가 왕후로 맞이 할만한 미인을 구할 때, 오호쿠메가 이스케요리를 천거했는데, 그녀가 후에 진무의 뒤를 이은 왕자를 낳았다는 것이다. 진무와 오오진 두 명의 존재가 모두 호무다(오오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진무의 뒤를 이은 왕자를 낳았다는 것은 곧 호무다의 뒤를 이은 왕자를 낳았다는 것이 된다.

[가정 2] 야마토 왕국의 시조는, “부여씨”인 백제의 왕손인 동시에 진정과 같은 (진씨 집안) 인물의 외손자이었다. 야마토 왕실의 직계 씨족들은, 백제 진씨 집안과의 혈연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외가 쪽의) 진인이라는 명칭을 간직했다. 즉, 야마토 왕국 시조 (호무다)의 (신대의 니니기-타카기 관계에 상응하는) “외가”는 백제 진씨 집안이며, 그들은 건국 과정에서 “친가”인 “부여”씨 쪽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삼국사기에서 등장하는 백제의 진정과 고사기와 일본서기 신대 기록에서 등장하는 타카기의 존재를 동일시 한다는 접근 방법을 택한다.

[가정 2.1] 진정은, 왕위가 (개루왕의 둘째아들 집안인) 고이-책계-분서-계 계통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고, 일찌감치

자신의 외동딸을 당시 왕위에 오르지도 않았던 계왕(재위 344-346년)의 아들에게 출가 시켰다.

[가정 2.2] 계왕의 아들과 진정의 딸 사이에는 이쁘세(五瀨)와 호무다(品陀)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가정 2.3] 일찍이 계왕 계통의 집안을 모시던 물부(物部, 北部?)의 요속일이라는 사람은, 비류왕 계통의 근초고왕이 등극하자, 크게 실망한 나머지 일족을 거느리고 신천지를 개척해 보려고 남쪽을 향해 떠났다.

[가정 2.4] 364년에 진정은 북부의 구저, 미주류, 막고 등 세 사람으로 하여금 신천지로 가는 경로를 정확히 알아 오게 했다.

[가정 2.5] 근초고왕은 진정에게, 다음해[368년]에 마한 정벌에 나설 계획이므로, 진정의 외손자들 일행도 함께 가서 마한 정벌을 우선 도와주고, 마한이 평정되는 대로 왜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어떠할까 물었다.

[가정 2.6] 370년 정월, 맑게 개인 어느 날, 일행은 임나 출신의 경험이 풍부한 뱃길 안내자 사오네쓰의 안내로, 쓰시마와 이끼섬을 거쳐 쓰쿠시(큐우슈우)로의 장정에 올랐다.

[가정 2.7] 키비 땅에서, 이쁘세 와 호무다는 원정군을 재정비하고, 좀더 많은 무기와 군량을 비축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다.

[가정 2.8] 호무다는 야마토 왕국을 세우고 나서, 백제와 고구려에서의 왕 또는 왕도의 명칭인 “어라하”, “위례” 혹은 “위나암”을 본 따서, 그의 첫 도읍지를 “이하례”라고 불렀다.

[가정 3] 시조 호무다는 백제 전지왕의 누이동생 신제도[오

키나가 마와카]를 맞이해 와카누케 왕자를 낳았다.

[가정 4] 신라의 실성왕은 내물왕의 셋째 아들 미사흔을 402년에 (야마토 조정에) 인질로 보냈다. 미사흔은 타지마 땅에 사는 마헤쓰미 라는 아름다운 규수를 처로 삼아 (418년에 귀국할 때 까지) 살게 되었다.

[가정 4.1] 미사흔과 마헤쓰미 사이에는 쿠로히메 라는 딸이 있었다.

[가정 4.2] 2대왕 사자키 와 쿠로히메는 오아사즈마 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20여 년 후에 그가 바로 5대 인교오 왕이 된다. (신라 내물왕의 셋째 아들인) 미사흔 왕자의 딸과 사자키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아사즈마(인교오) 왕이 되는 것이다. 즉 이하 왕후의 막내아들이라고 기록된 오아사즈마(인교오) 왕은, 이자호(리쭈우) 왕과 미즈하(한제이) 왕들의 “친동생” 이 아니라, 신라 왕실의 혈통을 가진 쿠로히메 소생의 “이복동생” 이라는 것이다.

[가정 4.3] 오아사즈마 가 서거하면, 그의 아들인 카루 태자가 왕위를 계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자 미즈하의 아들인 아나호 왕자는 사람들에게, 신라왕실의 혈통을 가진 카루 왕자의 왕위계승을 저지해야 한다고 선동을 했다.

[가정 4.4]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5대왕] 오아사즈마는 9남매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 넷째가 [6대왕] 아나호이고, 일곱째가 [7대왕] 하쯔세 라 한다. 일찍이 [3대왕] 이자호는, 후에 하쯔세 손에 죽은 왕자 두 명(오시하 와 미마) 과 공주 하나(일본서기는 둘)를 낳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다. 나는 후에 왕위에 오른 아나호 와 하쯔세는 오아사즈마의 소생이 아니라, 모두 [4대왕] 미즈하(水齒)의 아들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Chapter 22 begins at 517.